

디자이너 조은경, SK네트웍스와 조인 이후

「엑조」 파리컬렉션 정식 등극

지난해 8월 SK네트웍스와 조인해 자금력과 기획력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에 맡기고 자신은 의상 디자인에만 전념하게 된 「엑조」의 디자이너 조은경씨가 파리컬렉션 첫무대를 선보였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적인 것이 적당히 혼재된 작품으로 선보인 그녀만의 컨셉은

2006년 F/W 시즌 프레타 포르테 첫 컬렉션을 통해 더욱 그녀 특유의 ZEN(ZEN)스타일에 편안하고 페미닌한 스타일로 런웨이의 막을 열었다.

지난 3월3일 9시 휘볼리 거리에 위치한 카루셀 뒤 루브르(Carrousel du Louvre Salle Gabriel-09 rue de rivoli 75001 Paris)의 가브리엘 홀에서 선보인 이 행사는 프레스 홍보회사 'Groupe 22V (113, rue Saint Maur 75010 Paris)와 호흡을 맞춰 이뤄졌다.

지난 2000년에 그녀의 브랜드를 런칭한 후 처음 선보인 파리 프레타포르테의 이번 정식 패션쇼에서는 동등하게 볼륨을 준 칼라와 소매, 디테일에 중점을 둔 모던한 실루엣 속에 40년대 분위기를 연출한 「엑조」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넓은 벨트로 허리를 잡아 라펜 코트, 짧고 어깨에서 늘어진 솔 같은 재킷, 그러면서 노골한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컬렉션 스타일은 의상의 포인트마다 한국 천연섬유를 넣고 동양적인 선을 살려낸다는 점, 한국적미를 살려 더욱 페미닌한 스타일을 강조해 파리 패션에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겐조 등 세계적 패션 브랜드를 육성했듯이 기업과의 상생으로 한국의 패션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조은경씨는 SK네트웍스의 힘을 얻어 이번 패션쇼를 기점으로 기존의 거래선 이외에 미국, 중동, 일본 등으로 수주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

디자이너와 기업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바이어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해 하는 브랜드 이름을 남기기는 상당히 어렵다. 오랫동안 기억되는 디자이너로 남기 힘든 파리컬렉션에서 한때의 반짝이는 홍보를 노리기 보다는 얼마만큼 기억이 오래 유지되고 디자이너로서 이름을 남기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파리 현지에서 김다운(Dane Kim)리포터 fkdane@gmail.com

